



2009년 9월 21일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오른쪽 셋째)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사공일]

런던 G20 온 오바마, 태극기 배지 보자 “안녕하세요”

The JoongAng Plus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2009년 12월 30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사공일 위원장.
[중앙포토]

G20 정상들은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두 번째 만났다. 다행히도 런던 G20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한 세계적인 사후평가는 긍정적이었다.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단(트로이카)의 일원으로 런던 정상회의의 여전다 설정과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한민국의 G20 내 위상도 높아졌다.

런던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많다. 먼저 국제금융 시스템 개선과 감독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98년에 G7 국가와 주요 5개 금융센터 국가를 회원국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과 관련된 일화다. 워싱턴에서 G20 정상들은 이 FSF를 2009년 3월 31일까지 주요 신흥경제국의 가입으로 확대 개편할 것에 합의했다. 물론 워싱턴 회의 직후부터 우리는 경제 규모, 금융시장의 개방도와 성숙도 그리고 FSF 내에서 선진국

한·미 FTA ‘공파 로비’

오바마, 고교친구들에게 한국어 배워
FTA 중요성 언급에 “전적으로 동감”
미 의회 비준 위해 애쓰겠다 답해

과 개도국·신흥경제국 간의 가교역할 등을 고려해 한국은 반드시 FSF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 5일 런던 G20 세트와 회의에 참석중이던 안호영 조정관(주미대사 역임)이 FSF 신규회원국 가입에 관한 내부정보를 입수했다. G8 이외의 모든 G20 회원국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로 했으나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는 2석,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나머지 G20 국가는 1석만 배정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 영국의 존 커리프 보좌관과 3월 9일 정상회의에서 이를 확인해 봤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FSF 총회가 며칠 뒤에 열린다며 즉각 FSF 접촉을 권했다.

그 다음날 3월 10일, 마리오 드라기 FSF 의장(당시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과 통화를 시도했다. 물론 그는 직접 통화를 피했다. 대통령 특사(10~12일)로 일본을 방문 중이던 나는 FSF 사무총장과 3월 11일 새벽(도쿄 시간)에 40 여분간 통화했다. 우선 한국을 져서



한국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11월 19일 정상회담장인 청와대에 도착해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사공일]



두고 브릭스를 우대하는 것은 워싱턴 G20 정상들의 FSF 확장 취지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 비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드라기 총재에게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끝냈다. 이어서 로렌스 서머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회장, 프랑크 장-다비드 르브 보좌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TE)의 프레드 버그스텐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아슬아슬하게도 3월 11~12일 열린 FSF 총회에서 우리나라에 2석 배정이 결정됐다. 브릭스에게는 G7과 같이 3석을 배정했다. 국제정치 현실을 어떻게 하겠는가.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는 못했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는 타게 됐다”는 농담으로 위안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대표 2인이 이때 확대 개편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참가하고 있다.

4월 1일 저녁 버킹엄 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주재 리셉션이 있었다. 리셉션 라인에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인사를 나누고 후홀 안으로 들어서 브라질 물라 대통령과 이미 친교가 있는 경제학자 출신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조우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과 마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 재킷 태극기 배지를 보고 유감하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하와이 고등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부터 배웠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저서전 『대담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FTA 반대론자로 보도하고 있는데, 저서전을 읽어보니 다행히도 그렇지 않더라. 특히 한·미 FTA는 미국의 동아시아 진출로 확보한 경제 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 강화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함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의회 비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대통령에게 귀중한 공파 한·미 FTA “로비”를 한 셈이다. 그 이튿날 아침 한·미 정상회담장에서 다시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구원의 친근감을 보여줬다.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와는 그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 전에 잠시 마주쳤다. 커리프 보좌관과 함께 있는 나에게, 브라운 총리는 “그동안 당신이 한 일을 잘 알고 있다”며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우리 정부는 런던 정상회의 직후부터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제도화에 앞장섰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차기(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의사를 밝히게 됐다. 피츠버그 정상회의 직전에는 재무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의 공식 서한을 통해 의장국 수임 지지를 각국에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순번에 따라 차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의장국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자동으로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미 G20 국가 간에 한국의 차기 의장국 수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 다수의 국제기구와 주요 연구단체들은 한국의 차기 의장국 수임을 전제로 한국과 공동 콘퍼런스 개최 의사를 밝혀왔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를 전제로 나와 인터뷰를 원했다(2009년 5월 28일).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 전에 정상회의의 여전다에 관한 의견 조율과 한국의 차기 의장국 수임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로 미국과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는 내가 화두를 꺼내기도 전에 먼저 한국의 차기 의장국 수임에 대한 중국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2009년 8월 20일). G20 정상회의의 성과 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한국의 의장국 수임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곧이어 미 백악관 로렌스 서머스의 의장국도 만나(9월 8일)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서 2010년 상반기 중 회의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경제가 G20 간의 정책 공조로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보인다고 즉각 G20 정상회의를 1년 뒤로 미루게 된다면 세계는 실망하게 될 것이다. G20의 신뢰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환기했다.

서머스의 의장도 전적으로 동감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들의 잦은 해외여행이었다. 그래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8 회의의 시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가을에 한국에서

개최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사전에 영국 커리프 보좌관으로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캐나다가 미국·영국과 사전에 논의했을 것으로 짐작됐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먼저 G20 정상회의가 주행사가 돼야 한다. G8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G8과 G20의 여전다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경제문제는 G20에서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0년 6월 토론토 G8과 G20 정상회의의 동시 개최와 한국의 2010년 G20 의장국 지명, 그리고 11월 정상회의의 개최를 패키지로 피츠버그에서 발표해야 한다. 다행히도 피츠버그 정상선언문에 우리의 주장은 그대로 반영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G20 정상들과 수시로 통화와 서신 교환을 하는 한편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즈음하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에 호주 케빈 러드 총리와 함께 G20의 역할과 비전에 관한 공동기고(2009년 9월 3일)도 했다. 그리고 피츠버그 정상회의 직전에는 뉴욕 외교관계협의회에서 G20 역할 강

피츠버그 G20서 이론 성과

정상회의의 매년 정례 개최에 합의
2010년 의장국으로 지명된 한국
글로벌 여전다 주도 역할 맡아

화 필요성에 대해 연설도 했다. 그 이전 7월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됐던 G8 확대 정상회의의 무역 세션 특별 연설을 하는 등 글로벌 리더의 모습을 각인시켜왔다.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의 ‘국제경제 협력에 관한 프리미어 포럼’으로 정하고 매년 정례 개최에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주장해 온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제도화가 이룩된 것이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2011년 프랑스의 G20 의장국 지명이다. G14를 주장해 온 사르코지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흥미로운 타협이었다. 나는 영국의 커리프와 프랑스의 르브 보좌관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지구촌 경제 운영을 위한 비공식 운영위원회가 된 G20 정상회의의 첫 번째 좌장이 됐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남들이 정해놓은 여전다에 대한 찬·반 사이에서 고민하던 됐다. 이제부터 우리는 글로벌 여전다 설정과 합의 도출 자체를 주도할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18841호 40면 +